



이 동 식 / KBS-ITV 편집주간

사랑의 환희

일년이라는 짧은 기간의 마지막을 맞아 나는 지금 독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작별을 고해야 할까? 무언가 멋진 말, 멋진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것은 떠오르지 않고 얼마전 신문의 서평에서 본 이 말이 생각난다.

“세상은 증오로 살기엔 지나긴 권태요
사랑으로 살기에는 짧은 환희다.”

이 말은 10월 19일 바티칸에서 열린 시복식을 통해 성자 다음의 품계인 복자가 된 마더 테레사, 곧 테레사 수녀의 언행과 어록을 기록한 한 책을 소개하면서 출판담당기자가 머리말로 가져다 놓은 것이다.

테레사 수녀. 20세기에 있어서 인류의 사랑을 대표하는 가장 고귀한 이름이 아닌

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말씀으로 사랑의 실천을 이끌었다면 테레사 수녀는 행동으로 그 사랑의 실천을 보여주었다. 알렉산더가 창과 칼로 침략했다면 테레사는 사랑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인도를 공략해 마침내 인도를 굴복시켰다.

깨끗하고 조용한 수녀원이 아니라 고통받는 우리들의 이웃이 있는 수녀원 밖으로 튀쳐나온 테레사, 그를 기다리는 것은 수많은 빈민과 기아와 나환자였다. 그러나 이런 가장 낮은 곳, 험벗은 이들을 향해 믿음과 섬김의 사랑을 실천하므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의 기름이 되지 않았던가?

테레사에게는 가난이 오히려 경이로운 것이었다. 가난한 사람은 고통과 고된 일이라는 자원을 지닌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체험하는 자신을 행운아라고 했다.



가난을 어머니처럼 사랑하고, 단순한 가난의 길에 머무십시오.

영적 생활의 열매는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부자와 빈자는 서로를 구원하기 위

해 존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계급투쟁이 아닌 계급 간 만남입니다.

테레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진정한 사랑은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란 가장 평범한 진리를 담고 있다. 12세에 처음 수녀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고, 18세 때 수녀원에 들어간 뒤로 단 한번도 어머니와 만난 적이 없지만 어머니와 가정에 대한 각별한 존중을 드러냈다.

사랑과 불행 모두 가정에서 싹튼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의 따뜻함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이기심에 사로잡힌 어른들에 의해 신의 선물인 아이의 생명을 해치는 나라는 지독하게 가난한 나라입니다.

테레사는 요즘 세태를 예견이라도 한 듯, 아이의 생명을 해치지 말아야한다고 설파한다.

그러기에 한국은 지금 마음으로 가장 가난한 나라이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물질을 갖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고 주저앉는다. 테레사는 “가난도 불행이지만 나 혼자뿐이라는 생각, 아무도 나를 원치 않는다는 생각,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이야말로 불행 중 가장 큰 불행입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를 낙담하게 하는 자살, 그 자살의 밑바탕에 이런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건 석가건 이 시대의 고민을 먼저 깨우친 분들의 사랑이 전해져야 한다.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방법은 봉사를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봉사는 고통을 받고 있는 큰 바다에서 한방울의 구원이다. 그 구원을 위해 테레사는 자신의 몸을 불살랐다. 우리 모두가 그 길을 따라갈 수는 없다. 다만 독자와 작별하는 마당에 마음 속에 단 한가지만 기억해보자고 제의하고 싶다.

그들이 외로움에 떨 때, 그들이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그들을 이해합니까? 우리는 그들 곁에 있습니까?

1910년에 태어나 1997년에 돌아가셔서 87년의 삶인데, 과연 테레사는 증오로 살지 않고 사랑으로 살았기에 그 삶은 짧은 환희였다. 너무 짧아서 아쉽다. 과연 “세상은 증오로 살기엔 기나긴 권태요, 사랑으로 살기엔 짧은 환희다.” PPFK